

제6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제6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이 결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응모작품이 늘어난 90편의 신행수기가 접수된 가운데 입선 7인의 '장애를 넘어'를 비롯 모두 7편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일상 생활속에서의 신행과 진솔한 삶의 체험들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의 가슴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신행수기에 응모해 주신 많은 불자들에게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대상 (유마상)
 - 장애를 넘어**
 - 입순기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 ◇현대불교신문사장상(우수상)
 -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으로**
 - 백남영 (경북 경산시 진량읍)
-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 삶 그릇은 수행**
 - 강인준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 ◇특별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 삼보께 귀의합니다**
 - 홍건자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 ◇특별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 길을 찾아 나서다**
 - 심성일 (부산시 북구 화명동)
- ◇특별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 새로운 삶**
 - 허준오 (경남 남해군 철천면)
- ◇특별상 (진흥원 이사장상)
 - 개종해서 다시 찾은 삶**
 - 성경화 (부산시 진구 법전동)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여름 방학때의 일이었다. 동생이 며칠동안 절에 갔다 오더니 집에 와서 절을 하거나 벽보고 앉아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사찰 여름수련회에 가서 배운 절과 연벽좌선을 하는 것이었다.

"야, 너 뭐해?" 하며 벽을 보고 있는 동생 뒤를 툭툭히 갑자기 돌아서면서 "형! 몸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하고 되물었다.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내 몸에 장애가 있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일 내 가방을 들고 함께 등·하교를 하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지만 이렇게 막연하고 어려운 질문은 처음이었다. 생각을 한참 해봐도 답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공부나 해"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동생을 통해서나마 불교와 처음 접하게 된 계기였다.

내가 본격적으로 불교와 직접 접한 것은 금산군 보석사의 육바리밀 학생회에 나가면서 부터였다. 그때 처음 들었던 법문이 지금도 생생하다. "부처님께서 법문 중에 토끼가 법상 밑으로 숨어들어 왔어요. 잠시후 사냥꾼이 와서 부처님께 '토끼가 이곳으로 도망 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밑으로 숨었다고 하면 토끼가 죽게 생겼고 그렇다고 다른 쪽으로 도망갔다고 하면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였겠습니까?' 이같은 스님의 질문에 20여명 되는 학생 중에 대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때 나는 마음속으로 '부처님은 도인이니까 도술로써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생각하며 어떤 도술을 부릴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스님은 잠시후 "부처님은 다른 곳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답을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부처님도 별 힘이 없으시네' 하고 실망했다. 그러자 스님은 그런 내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부처님은 신통력을 부리는 분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곳이든 가장 알맞게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한마디에 그때부터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무척 궁금해졌다.

고 3가을이 돼서야 집안이 어려워 대학 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혹시나 장학생으로 뽑히면 보내줄까 하여 대학 시험을 보았으나 합격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나는 미대에, 동생은 자기가 벌어서 다닌다고 야간대 전산과에 시험을 봐서 둘 다 합격했지만 능력에서 대충을 받고 집에 있는 소까지 팔

장애를 넘어



처음 108배를 하고 바라보는 부처님 모습에 물기가 어려...

아도 한 사람의 등록금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생만 대학에 입학시켰다. 동생 사람들은 '왜 형을 보내야지 동생을 보내느냐'고 말했지만 난 아버지께 여쭙 보지도 않고 동생을 학교에 보냈다. 그때 나의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스님은 한분이 절에 와서 며칠 좀 쉬었다 가라고 하셨다. 절에 들어가서도 나는 그림은 나의 분신일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했기에 대학 진학에의 집착을 떨쳐 버리기가 힘들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때 그림을 그리고 싶어 화실에 가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일인지 하여가정이 넉넉하지 못하니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나도 몰라나지 않으면서 '저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나누어주세요'라고 강력하게 버티는 정도로 화가가 되겠다는 꿈이 간절했다. 그이듬해에 동생이 군에 간다고 하길래 나는 시험을 다시 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

고의 불구부정(不垢不淨)을 염했고, 책에서 본 선지식들의 결집없는 의식주를 많이 접해서 인지 창피한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몸이 따라 주질 않는 것이었다. 불구적인 식사와 과로로 몸에 이상을 느껴 미루고 미루다가 병원을 찾아가니 '신경성 만성위염'이라고 했다. 의사의 처방이 약도 먹어야했지만 마음을 편하게 해야 낫는다고 했다. 그래서 정신 수련을 위해 직장 근처에 있는, 압구정동 동산반야회 포교당을 찾았다. 그때부터 법사님이 일러준 대로 <천수경>을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기 시작했다. 100일을 하고 나니 소화도 잘되고 공복만 되면 위가 쓰러져 위장약을 먹던 버릇도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 뒤부터 직장이 쉬는 날이면 압구정동 반야회 포교당과 잠실 불광사에 나갔다. 한때는 <금강경>에 심취하여 금강경독송회에도 열심히 다녔다. 일의 특성상 야근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밤 11시에 집에 와 잠을 자다가 새벽 3시30분까지 성복동 독송회 법당까지 가기 위해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곤 했다. 거의 한 달이 지났을까, 하루는 목이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몸상태가 최악이라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그때부터 난 정신안과 몸이 다른데 똑같은 수행법을 고집한다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환경에 맞는 기도법을 찾기 시작했다. 주위에선 나보고 절 잘하는 장애인이라고 불렀다. 누가 봐도 내 몸상태로 3천배를 했다고 하면 믿질 못하겠지만 사실이다. 3배 이외에는 해보지도 않았던 내가 동산반야회에서 기초교리를 배우던 14년전 조계사 대웅전에 들어가 3배를 한 후 조금 더하고 싶어 7배를 하고 21배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 108배까지 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108배를 하고 바라보는 부처님 모습에 물기가 어려우니 바로 쳐다볼 수 없었던 그때, 한참 후 계단을 내려오는데 양팔과 성한 다리가 갑자기 후들거리고 그 자리에서 굴렀다. 다음날 땅바닥을 기어다니다시피 걸어다니는게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부처님 전에 108배를 했다는 뿌듯함에 한없이 즐거웠다. 이런 체험 덕분에 절을 자주 하게 되었다. 절을 자주 하다보니 나만의 요령이 생겨 우측 다리가 신경은 거의 없어도 균형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5년 전 동산법당에서 여름과 겨울 한 달간 3천배 정진할 때 퇴근 후 매일 200-700배를 하여 한 달간 총 10,500배를 하고부터는 절에 또 한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소문은 무서웠다. 어떻게 알았는지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KBS-TV 방송국 PD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2001년 1월 1일 개원 (서울)

마음을 길들이는 집, 마음 다스리는 곳, 위빠싸나 (여래선) 신문 수행처.

근본불교진흥원 여래선원
Buddhapha Meditation Center
서울 · 강남구 신사동 511-5 02)512-4422
대구 · 수성구 범어동 292-15 053)744-9009
미얀마 · Seikantha New Dagon Yangon Myanmar 95-01-70-3877

法山 붓다피어(Buddhapy)스님 직접지도

▷참고 저서 - 위빠싸나 33일 (우리출판사) 그대들도 나처럼 이 길로 오라(민족사) 빈손도 내려 보라 (출판예정)

피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위를 맞춰야 할 게 3자는 없으니라 법과 잠신만을 의지하여 염 없이 정진하라!
(붓다의 마지막 유훈)

서울	에비기초반	매주 화, 목 - 오전 11:00-12:20
서울	일반수행반	매주 월, 수, 금 - 오전 10:30-12:30, 오후 7:30-9:30
서울	주방정진반	매주 토, 일 - 오전 10:30-12:30
대구	일반수행반	매주 화, 목 - 오후 7:00-9:30
대구	참야정진반	매월 세 번째 토요일 - 오후 8:00-익일 03:30

■ 수행일정표
서울 (佛院)의 숲단은 금강경과 이현경(임시경전)의 계승리를 김철현

■ 선원 오는 길
서울 센터: 신사역 6번 출구 전방 120M에서 우측 60M 근
대구 센터: 수성구청에서 남부 정류장 쪽으로 80M에서 우측 500M 근
미얀마 센터: 양곤의 신도시 남양곤에 위치 (직접 문의)

■ 여래선원 (대구)
선우회 회장(임승) 無我 합승회
부회장 飛龍 이영대 부회장 功德華 한정숙
총무 東安 정효영 기획 度羅華 이정현
종무 度羅華 조은수 재무 甘露華 오인숙
포교 菩提華 오인순

보건복지분야의 자원봉사 및 포교교육기관

불교복지보건대학

명예학장 : 성오스님 학장 : 예도스님

■ 개설강좌

교과과정	개강일	교육시간
불심호스피스 간병과정	1월, 4월, 7월, 10월 (3개월 과정)	주 2회 (2시-5시)
포교사 과정	매년 3월 (1년과정)	주 2회 (7시-9시)
자비심리상담사 과정	매년 3월 (1년과정)	주 1회 (7시-10시)
불교대체요법 과정	매년 3월 (1년과정)	주 2회 (7-10시)

■ 안 내

1. 수시접수
2. 구비서류(공통): 사진 3장(3×4)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3. 문의 및 접수: 본교 서무과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63-5 대야빌딩 4층
전화: 051-462-5670
팩스: 051-462-5671

갓바위 소원성취 달마도

2001년 액운을 막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비의 달마도

규격 38×25cm

10장이상 본사에 필요하시면 영가로 보시바랍니다.

정면주사(시험 승진) 가격 3만원

규격 35×70cm

저석달마(부부화합,건강) 보금가 5만원

사원성취 소원성취 수액달마 특별보금가 10만원

▶ 사업 실패, 가정불화, 자녀 문제, 부부 갈등, 부동산 매매, ▶ 삼재소멸, 국가고시, 자격시험, 승진시험, 답답하고 초조하신 분 망서리지 마시고 전화 하십시오.

지장선원

(053)982-4976 / (011)813-3679

▶ 아래구좌로 입금후 전화주시면 곧바로 우송해드립니다.
농협 150042-52-200478 예금주: 이민택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현대결혼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불자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건강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11월 5일 강남 오피스텔에서 시흥시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이 멀고 활동범위 시간 관계로 옮기게 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 운행·전화약속(30분소요) 영등포역→신세계 백화점 정문 역극 남부역쪽 1호선 하차→ 기업은행 정문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 다산, 초·재혼 신원 확실히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성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031) 315-5429
대표전화: (02) 522-5121
핸드폰: (018) 277-5592